

2027학년도 EGOIST 모의평가 1회 문제지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 조금 씹쌀한 오렌지처럼 뒤에 남은 애뜻함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쪽
  - 언어와 매체 ..... 17~20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에서 영재성을 갖춘 영재 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를 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영재성을 갖춘 아동에 대한 특별 교육을 비민주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이 아닌, 국가 발전과 안보 수호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듬해 제정된 「국가방위교육법」은 영재 선발 및 교육에 대한 당시 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고된 영재에 대한 관심 속에서, 기준에 단순히 특정 IQ값을 기준으로 판별되던 영재성은, 1970년대 발행된 미국 교육부의 말랜드 보고서를 통해 지적 능력 및 특수 분야의 학업 적성이나 창의적, 생산적 사고 등 다양한 영역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영역에서 뛰어난 특질로 재정의되었다. 이는 렌줄리에 의해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력, 과제 집착력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영재 아동 모델로 발전했다. 선별 과정도 단순 점수 기반이 아닌 영재적 행동의 관찰 기반으로 변화했다.

그렇다면 왜 영재 아동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는 다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가? 비교즈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는 전제 하에, 아동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의 과제를 교사의 도움과 함께 해결할 때 아동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아동이 어려움을 느끼는 범위인 ‘근접 발달 영역’ 내 과제를 해결할 때 아동의 교육이 발생하는데, 표준 교육과정은 제시하는 기본 어휘 해독 능력 습득과 유창성 개발 및 사실적 독해는 영재 아동으로 하여금 충분한 학습 동기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 어휘 해독 능력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여, 이미 알고 있는 구어 어휘와 연결하는 인지적 과정이고, 유창성은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능력을 뜻한다.

영재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는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이다. 행간을 통해 불확정적 일상언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단순 추론을 넘어, 텍스트가 전제하는 논리의 정합성을 판단한다거나, 그것을 가치적 차원에서 평론하는 [A] 능력, 그리고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확장해 나가는 독자의 태도를 훈련할 때, 영재 아동은 비로소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잠재력과 학습환경의 괴리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학습에 흥미를 느낄 때에야 진정한 잠재력 계발과 능력의 발현이 가능하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말랜드 보고서는 아동의 영재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 ② 스푸트니크 쇼크 이전까지 미국 시민들은 영재 교육의 개념을 알고 있지 않았다.
- ③ 「국가방위교육법」에는 영재 아동의 선별과 특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 ④ 렌줄리는 과제 집착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아동을 영재 아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⑤ 영재 아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종류의 영재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 [A]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재성에 대한 변별 기준은 부정확한 면이 많으며 자의적이기까지 하다. 영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아동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 ② 글의 핵심과 요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영재성을 갖는 독자인 것은 아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내면화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영재이다.
- ③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 수준의 소양을 갖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잠재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움 때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영재 아동을 일반 아동과 격리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정된 교육 예산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학업 능력이 부진한 학생에게 우선 배분되는 것이 옳다.
- 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어떤 아동에게는 시공간적 추론이나 수리적 추론, 패턴 인식 및 처리 속도와 같은 역량만이 다른 아동에 비해 뛰어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재성을 갖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A는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언어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A는 별다른 지도 없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시를 낭독할 수 있었지만, 학교 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국어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수업 이외에는 그저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만이 일상이다.

- ① 학교에서 제시되는 읽기 과제는 A의 ‘근접 발달 영역’에 있지 않을 것이다.
- ② A가 글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도, A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③ A는 주어진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여 그 발음을 생각하고,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는 현재 사실적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고도의 독해 능력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난이도가 있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과제를 부여하면, A의 진정한 잠재력을 계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관찰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계급 투표라고 할 수 있다. 계급은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결과로 나타난,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따라서 계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한 사회 내부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이 전제된다면, 계급 투표론의 내용은 개인이 속한 경제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계급적 처지가 투표 참여와 정당 지지를 통해 [A]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 계급이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갖는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지가 서로 합리적으로 조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 투표론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을 가정하는 이익 이론의 일종이다.

현실에서 여론의 흐름은 사뭇 다른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계급 배반 투표란 유권자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계급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스트는 저소득층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 즉 그들이 우경화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유익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체제를 정당화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나 전통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다.

프랭크는 정치의 변화를 그 이유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으로 쇠락한 백인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공화당에 투표하는 현상은 정치에서 경제적 이슈가 실종되고 문화적 이슈가 급부상한 것과 연관이 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이 경제적 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이후, 즉 진보적이던 민주당이 고헤력 엘리트의 정당으로 변질된 지금, 사람들은 이제 누가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존중해 주느냐를 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잉글하트는 ‘계급 배반 투표’가 사실은 가치 투표이며, 노동자들은 고소득 정치 엘리트들에게 기만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존재라고 프랭크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프랭크가 주장한 민주당의 변화는 사실 고소득층의 탈물질주의 화에 따른 것이다. 부유해진 계층은 더 이상 생존에 직결된 요소들, 대표적으로는 경제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물질적인 이슈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탈물질주의는 전통적 물질주의 가치관과는 충돌하는데, ㉠이 역시 합리적인 저소득층 유권자라면 대응해야 할 문제로 작용한다.

한편 피오리나는 동일한 현상을 그저 양당제하에서의 ‘정권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무능한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합리적이다. 바텔스는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이 통계적 착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인종과 지역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여전히 사람들은 경제적 계급을 근거로 투표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4. 학생이 [A]를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이 사회 구성원을 범주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계급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개인이 갖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지하는 정파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③ 계급에 따라 정치적 손익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어떤 계급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④ 계급이 발생하기 위한 원인에 주목하고, 그 시기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읽었다.
- ⑤ 계급 투표가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현상임에 주목하고, 그것이 발생한 이유가 나와 있는지의 여부에 주목하며 읽었다.

5. 잉글하트에 따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이 계급적으로 대변하는 대상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 ② 유권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이며, 논의되는 현상 자체가 일종의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 ③ 저소득층은 정치적 유력자들의 영향력하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경제적 손익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손익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저소득층의 물질주의적 성향이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 탈물질주의화되기 때문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ㅁ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저소득층이 보수화 되는 것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기 위한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한다.

ㄴ. 미국 민주당이 엘리트 고소득층의 정당이 된 것은 정치적 음모가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ㄷ. 손실을 기꺼이 지분할 때만, 그 신념은 비로소 탈물질적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ㄹ. 유권자는 여당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근거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한다.

ㅁ. 모든 유권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 ① ㄱ은 조스트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② ㄴ은 프랭크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잉글하트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 ③ ㄷ은 잉글하트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ㄹ은 피오리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⑤ ㅁ은 바텔스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조스트와 프랭크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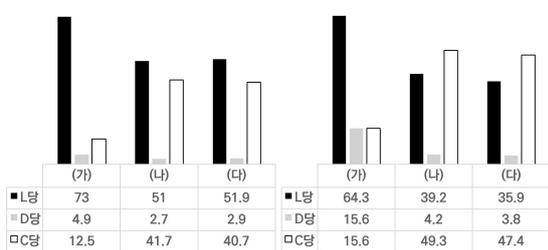
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U국의 집권 여당은 보수 성향의 C당이며, t년~t+2년을 포함한 기간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다. 제1야당은 진보 성향의 L당이다. L당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기반의 정당이었으나, 최근 지도부가 고학력 엘리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제2야당 D당은 중도 성향이나, 사회문화적 의제에서 L당보다 급진적 진보의 입장을 취한다.
- 다음은 U국의 선거구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자료이다.
  - 선거구 (가)는 수도의 최상위 부촌이며,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직이 주로 거주한다.
  - 선거구 (나)는 노동 계급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으나 안정되어 있다.
  - 선거구 (다)는 몰락한 탄광촌으로 3개의 선거구 중 가장 빈곤한 지역이다. t년~t+2년 동안 이 선거구의 경제적 몰락은 점점 가속화되었다.
- 다음은 U국에서 두 차례 시행된 의회 의원 총선거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년 선거에서는 의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기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t+2년의 조기 선거에서는 C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t년 선거에 비해 t+2년 선거는 계급 배반적 결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t년도 선거 결과

t+2년도 선거 결과



- ① 조스트는 t+2년 선거구 (나)에서의 C당의 승리를 t년 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성에 대해 저소득층이 방어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② 프랭크는 위 자료를 근거로, t년에 비해 t+2년에 L당의 엘리트화가 심해져 경제적 의제를 중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③ 잉글하트는 t+2년 선거구 (가)에서의 D당의 약진을 자신의 이론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피오리나는 t+2년 (다) 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자신의 이론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바텔스는 개별 유권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전히 저소득층일수록 L당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의 종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생물 분류 단계이다. 에른스트 마이어의 고전적 종의 정의에 따르면, 서로 번식이 가능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교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는 무리를 같은 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잡종의 존재는 그의 고전적 정의와 충돌한다. 늑대와 코요테, 개 사이 잡종의 번식력과 같은 명백한 반증 사례는 종에 대한 에른스트의 정의가 통용되던 ④ 때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우리에게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한 것으로 잘 알려진 우장춘 박사는 기존에 다른 종이라고 ⑤ 여겨졌던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유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하여 도쿄제국대학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에른스트의 정의를 깨뜨린 것을 넘어서, ‘자연 선택 때문에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한 성과였다. 그의 연구 결과, 특히 식물에서, 배수성 돌연변이가 중간 합성을 통해 생식 가능한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같은 모양의 상동염색체를 두 개씩 짝지어 갖는다.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각 염색체의 짝은 분리되어, 정상적인 생식세포에는 짝을 이루지 않는 하나의 상동염색체만 존재하게 된다. 이 과정을 염색체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하나의 생식세포에 모든 상동염색체의 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거리가 있는 서로 다른 중간 교배는, 자손이 성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상동염색체 짝이 맞지 않아 생식세포가 정상적으로 ③ 생기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인 부모 각각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배수성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애초부터 쌍으로 존재하는 이질배수체에서야 생식세포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질배수체가 중간 교배를 통한 종의 합성을 항상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핑 유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트랜스포존’을 먼저 알아야 한다. 트랜스포존은 유전체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DNA 서열인데, 트랜스포존이 DNA 염기 서열에 삽입되면 돌연변이가 발생해 예상되지 않았던 형질이 발현되거나, 꼭 필요한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종의 유전체 DNA가 같은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된 상황에서, 트랜스포존이 활성화되어 유전체가 변이되고 발생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게놈 충격’이라고 한다.

게놈 충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④ 가설이 있다. siRNA 미스매치 가설은 트랜스포존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에 siR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주목한다. 트랜스포존으로부터 생성된 RNA는 세포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유전 정보를 갖는 이중가닥 RNA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효소의 일종인 DCL이 바로 그것인데, DCL은 트랜스포존으로부터 생성된 RNA를 감지하면 이를 잘라 siRNA로 만든다. 생성된 siRNA는 AGO 단백질과 결합하여 자신과 염기 서열이 동일한 트랜스포존만을 찾아 파괴한다. 그런데 이중교배를 하는 두 종의 진화적 거리가 멀수록, 염기

서열 차이가 커져서, 트랜스포존의 염기 서열 차이도 커지게 된다. 염기 서열의 불일치가 siRNA의 작동을 막아 트랜스포존의 과발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siRNA 미스매치 가설을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과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이 있다.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은 이종 간의 생식세포가 합쳐질 때, 트랜스포존의 절대적인 개수가 ④ 늘어남에 주목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백질이나 효소는 그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은 siRNA나 억제 단백질의 유무와 무관하게, 교잡이나 배수성 돌연변이 자체가 염색체의 크로마틴 구조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로마틴 구조는 DNA 메틸화의 결과 생성되는 구조로, 트랜스포존이 원래 존재하던 위치 밖으로 나가는 것을 ⑤ 막는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구조물이다.

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DCL은 트랜스포존으로부터 유래된 RNA를 siRNA로 합성한다.
- ② 배수성 돌연변이가 발생한 생식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홀수개이다.
- ③ 인간의 DNA 서열 중에는 생물체 내에서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존재한다.
- ④ 우장춘 박사는 이종 교배를 통한 잡종의 탄생 현상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 ⑤ 생식세포 분열이 성공하려면 상동염색체가 두개씩 짝을 지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9.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배를 하지 않는 무성 생식 생물의 존재는 종에 대한 에른스트의 정의와 충돌한다.
- ② 이질배수체 내에서 트랜스포존의 위치가 이동했다면, 그 개체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 ③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학적 종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이 작용해야 한다.
- ④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시에만 염색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자손은 이질배수체가 아니다.
- ⑤ 말과 당나귀가 교배하여 태어나지만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노새는 종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의 가설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서로 다른 종 A와 B의 교배 연구에서, A 유래의 siRNA는 B 유래의 일부 트랜스포존과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트랜스포존들만이 활성화되었다.
- (나) 다양한 이질배수체를 관찰한 결과 활성화된 트랜스포존에 대응되는 siRNA는 존재했지만, 오히려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 (다) 서로 다른 종 C와 D 간의 인공 이질배수체 대상 연구에서,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량 증가에 정비례하지 않았으며, 트랜스포존 억제와 관련된 단백질들은 배수화 직후에도 적절한 농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 ① (가)는 siRNA 미스매치 가설과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의 설득력은 강화하고,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시켰군.
- ② (나)는 siRNA 미스매치 가설의 설득력은 강화하고,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시켰군.
- ③ (다)는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하지만, siRNA 미스매치 가설과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의 설득력은 강화시켰군.
- ④ (나)의 실험 결과에서,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실험 오류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메틸화가 유지되었다더라, siRNA 미스매치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시켰군.
- ⑤ (다)의 실험 과정에서 사실 이질배수체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되었군.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시기(時期)에도                      ② ㉡: 증명(證明)됐던
- ③ ㉢: 변형(變形)되지                      ④ ㉣: 배증(倍增)되는
- ⑤ ㉤: 단절(斷切)하는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단순한 영혼의 재생에 대한 관념은 인류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정교한 도덕적 인과응보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문명은 동양의 인도 문명이다. 인도 다르마 계열의 철학, 즉 힌두교나 불교의 철학에서, 전생과 환생은 우주의 자연적 이치이자 도덕적 인과율인 카르마가 ㉠ 가져오는 윤회로 생각된다.

선한 행위는 천국이나 인간계와 같은 ‘좋은’ 탄생으로, 악한 행위는 지옥이나 짐승과 같은 ‘나쁜’ 생명체로 이어지는 카르마적인 순환의 과정을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는 “사람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아트만은 낡고 쓸모없는 육체를 버리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육체를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아트만은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신적 존재인 브라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힌두교적 관점에서 고통스러운 윤회라는 사슬을 ㉞ 끊어버릴 방법은 없는가? 「우파니샤드」는 이 질문에 “아트만과 브라만이 동등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답한다.

다르마 계열 철학은 동양권 곳곳으로 전파되어 전생과 환생 개념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 양상은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동 산악 지역의 토착 소수 종교인 드루즈교의 교리에 나타나는 환생론이 그 예시이다. 드루즈교 경전인 「지혜의 서신들」의 “육체는 영혼이 입는 셔츠일 뿐이다. 육체가 낡아 죽게 되면 즉시 다른 육체로 이동하여 입게 된다.”라는 구절이나, 또 다른 교리서 「서약의 서」의 “우리는 태초에 유일 신론자로서의 서약을 맺었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그 서약을 기억하는 유일신론자의 어머니 뱃속으로만 날아간다.”라는 구절은 힌두교의 윤회 철학이 재창조되어 뿌리내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후자의 구절은 주류 이슬람으로부터 탄압받던 소수민족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항쟁을 ㉟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전생 및 환생 의식의 전래와 재해석의 또 다른 예시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토착 종교인 고대 신도에서 죽는다는 것은 기피해야 할 ‘부정’이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세계인 ‘요미’로 떠나 격리되고, 긴 세월의 정화를 거쳐서야 겨우 집합적 조상신인 ‘카미’와

[A] 하나가 되어 산에 머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개념이 인도 다르마 철학의 소개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영의 진주」에 등장하는 표현 “죽은 자의 영혼은 부처와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머물며, 산 자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만일 후손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카미는 반드시 감응하여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추측할 수 있다.

(나)

서구에서의 전생과 환생에 대한 담론의 자체적 맹아는 기원전 플라톤주의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3세기 오리게네스가 정립하고 이후 에바그리우스 등에 의해 급진적인 방향으로 체계화된 오리게네스주의는 영혼이 육체 이전에 미리 존재했음을 전제했다. 이는 논리적으로 윤회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로 ㉠ 열려있는 것으로, 단회성인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서 교회의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에, 당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의결된 15개의 조항은 명시적으로 환생에 대한 언급을 파문 사유로 규정하였다. 비록 오리게네스주의에 대한 물이해일지라도, 이 문건은 서양 기독교 사상사에서 ‘윤회’ 개념이 공식적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 훗날 근대에 들어서 보다 대중적으로 영혼의 순환성 담론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에는 신비주의적 오컬티즘의 공이 지대하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양의 지적 유산에 행한 [창조적 오독]의 양상이다.

오히려 서구의 고전적 논의들은 그저 ‘고대 지혜’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알리바이’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세기 말 블라바츠키는 진화론을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서양의 환생 전통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모든 종교의 근원에 위치하는 ‘고대 지혜’를 탐구하는 신지학을 주창했는데, 그것의 근본적 작동 원리로 힌두교의 전생론을 참고한 특유의 환생론을 상정했다. 그 과정에서 카르마에 기반한 인과응보 체계는 서구식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로 대체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절대화한 신에 반발한 오컬트적 영지주의는 구원받는 죄인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동적 인간상을 ㉡ 생각하며 드루즈교의 모티프를 차용했다. 그들 역시 치열한 ‘문화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탄압받는 소수 종교라는 정신적 공통분모는 그들로 하여금 드루즈교에 열광하게 하기 충분했다. 드루즈교의 지적 유산 수용을 통해 그들은 신지학과 마찬가지로 ‘더 영적으로 상위인 존재로 나아가는’ 인류 공동체적인 영적 진화론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심령주의는 확산되던 근대 유토피론에 대한 반동이었지만, 동시에 교조적 관념에 매몰되던 주류 기독교 사회의 극복과 보다 실감적인 영적 자극을 추구했던 종교적 운동이다.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은 영혼과의 직접적 재회였는데, 일본의 윤회 개념은 그 지향과 가장 정합적이었다. 라프카 디오 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죽은 자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며, 세상에 남아 대소사를 함께 지켜보고 통치하는 사랑과 친밀함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12.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다양한 종교적 경전의 구절이 인용되었음에 주목하고, 그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읽었다.
- ② (가)에 특정 철학적 논의영역의 이항대립적 주제가 나타났음에 주목하고, 그 중 어느 범주가 집중되어 서술되어 있는지에 주의하며 읽었다.
- ③ (가)에 전생과 환생 관념이 동양권에 전래된 과정이 제시되었음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과 환생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며 읽었다.
- ④ (나)에 오리게네스주의와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입장 차이가 제시되었음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되었는지에 집중해서 읽었다.
- ⑤ (나)에 언급된 신지학, 오컬트적 영지주의, 심령주의가 오컬티즘과 상하관계를 이루는 개념임에 주목하고,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읽었다.

13. 윗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리게네스가 이론적 틀을 마련한 서구의 전생과 환생 관념은 에바그리우스에 이르러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 ② 다르마 힌두 철학에 따르면,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으면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 ③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이후에 윤회 담론이 서구에서 단절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 ④ 영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그 즉시 동일한 인간으로 환생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 ⑤ 다르마 철학의 전래는 일본의 전생과 환생 관념의 염세적 성격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14. [A]와 [B]를 바탕으로 다음 글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본래 이 다도산(多度山)의 카미다. 나는 전생에 무거운 죄업을 지은 탓에 그 응보로 카미의 몸이 되었다. 나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이 고통스러운 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바라건대 선사여, 나를 위해 이곳에 불법을 닦는 도량을 짓고 불경을 설해다오.

- 만간 선사, 「다도신공사 가람연기」 -

- ① <보기>의 카미의 모습은 「영의 진주」에서 묘사하는 카미의 특징을 갖추고 있군.
- ② <보기>의 카미는 산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보기>는 일본의 고대 신토를 대표하는 창작물이겠군.
- ③ <보기>에 나타난 카미와 인간 세상의 관계는 라프카디오 한이 언급한 일본의 영혼상을 뒷받침할 만하군.
- ④ <보기>의 카미가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일본의 불교적 관념이 다르마 힌두 철학과 유사함을 보여주는군.
- ⑤ <보기>는 라프카디오 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불간섭에 기반한 이분법적 구도를 뒷받침하지 않겠군.

15. 창조적 오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가바드 기타」에 제시된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은, 타 문화권에서 창조적 오독을 거쳤지만, 19세기 말 신지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② 「서약의 서」가 상징하는 죽은 자가 환생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은, 타 문화권에서 창조적 오독을 거쳤기에, 신지학이 상징하는 집합보다 넓다.
- ③ 「우파니샤드」에 제시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타 문화권에서 창조적 오독을 거쳤기에, 19세기 말 신지학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④ 「바가바드 기타」에 제시된 죽음 이후 환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타 문화권에서 창조적 오독을 거쳤기에, 「지혜의 서신들」 및 영지주의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⑤ 「영의 진주」가 제시하는 영혼의 지속성과 상호작용 가능성은, 타 문화권에서 창조적 오독을 거쳤지만, 심령주의가 주장한 영혼의 특성들과 상충하지 않는다.

16. <보기>와 (나)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비를 먼저 뽑은 사람이 튀어나와 주저 없이 가장 강력한 독재자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그 삶을 속속들이 살피지 않고 덤석 골랐는데, 기계에는 자식들을 잡아먹고 온갖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운명이 들어 있었다. 그는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선택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운명을 탓하고 신들을 탓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했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영혼이 백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는 스무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그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자의 삶을 택했다. 다음은 아가멤논이었는데, 그 역시 인간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독수리의 삶으로 바꾸었다.

- 플라톤, 「국가」 -

- ① <보기>에 나타난 윤회 및 환생의 가능성은, 근대 오컬티즘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겠군.
- ② <보기>에 나타난 제비를 먼저 뽑은 사람의 선택과 이후 제시되는 선택에 대한 반응은, 심령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겠군.
- ③ <보기>에 나타난 오르페우스의 영혼과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선택은, 19세기 신지학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겠군.
- ④ <보기>에 나타난 윤회의 최종 목적이 이상적 세계로의 복귀라는 사실은, 심령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겠군.
- ⑤ <보기>에 나타난 이성적이지 않은 주체가 환생의 결과 비극을 겪게 된다는 내용은,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야기(惹起)하는                      ② ㉡: 재편(再編)해낼
- ③ ㉢: 결속(結束)해갈                      ④ ㉣: 귀결(歸結)되는
- ⑤ ㉤: 답습(踏襲)하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인은 심생을 부르고 이르기를  
 “도령님은 들어오소서.”  
 심생은 미처 헤아릴 세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여인은 다시 그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심생에게 이르기를,  
 “원하거니 도령님은 잠시 앉아 계시지요.”  
 그러고는 ㉠윗방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나왔다. 부모는 심생을 보고 몹시 놀랐다.  
 여인이 말했다.

“놀라지 마시고 소녀의 말을 들어보옵소서. 소녀 나이 열일곱으로, 발걸음이 일찍이 문밖을 나가지 못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다 지난달에 우연히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였고, 돌아오던 길에, 소광통교에 이르러서, 덮어쓴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건히었나이다. 마침 그 때 한 초립을 쓴 도령과 얼굴이 마주쳤사옵나이다.

그날 저녁부터 도령은 안 오시는 밤이 없이, ㉠이 방문 밑에 숨어 기다린 지 이미 삼십 일이 지났나이다. 비가 와도 오시고, 추위도 오시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시었사옵나이다.

소녀는 꿈꿈이 생각해 보았사옵나이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녁에 들어왔다가는, 새벽이면 나가는데, 홀로 ㉡창벽 밖에 있다가 그저 갔다고 누가 믿겠사옵니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좋지 않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옵니다. 소녀가 반드시 개에게 물린 썩이 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분은 사대부댁 낭군으로, 나이가 바야흐로 청춘이라, 월기가 아직 정해지지 못하였사옵나이다. 다만 나비와 벌이 꽃을 탐낼 줄만 알았지, 바람과 이슬에 맞음을 돌보지 않았으니, 며칠 못 가서 병이 나지 않겠사옵니까?

병이 들면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라니, 그러면 소녀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오니, 비록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음보가 있게 되옵니다.

또, 소녀의 몸은 한낱 중인집 딸에 불과합니다. 절세의 경성지색으로, 물고기가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용모를 지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럼에도 도령께서 술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소녀에게 지성을 바치기를, 이토록 부지런히 하오셨사옵나이다. 만일 도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소녀에게 주시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소녀의 마음은 이미 정하였사옵나이다. 원하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아, 소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동기간이 없사옵나이다. 시집가서 데릴사위를 맞아, 살아계실 때에 봉양을 극진히 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시면, 소녀의 소망에 죽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이제 일이 뜻밖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이옵니다. 말해 무엇하겠나니까?”

그 부모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심생 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하게 되었다. 목마르게 사모하던 끝에 얻었으니, 그 기쁨이야 가히 알 만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간 이후로, 날이 저물 때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여인의 집은 본래 부유했다. 그리하여 심생을 위하여 화려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보아서 감히 입지 못하였다.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마침내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심생은 불만스런 마음에 우울하게 ㉢ 집에 머물다가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 짊어 메고 ㉣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에 머문 지 장차 한 달 가까이 되니, 심생에게 여인의 언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편지를 펴보니, 유서로 영영 이별하는 내용이었다.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다.

그 ㉠ 편지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봄추위가 여전하운데, 산사의 글공부에 건강이 더 좋아지셨사옵니까? 사모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잊을 날이 있었겠사옵니까. 소첩은 도련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우연히 한 병을 얻어, 점점 골수에 사무쳤사옵나이다. 약도 음식도 모두 소용이 없는지라, 이제 필경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사옵나이다.

(중략)

이제 상봉하든지 얼마 아니 되어 문득 길이 이별하옵고, 병으로 누워 죽음이 다가왔으나, 대면하여 영결하지 못하옵나이다. 이러한 여자의 슬픔을, 어찌 죽지 군자에게 말씀드리오리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창자가 이미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하옵나이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쓰러지고, 시들은 꽃잎이 진흙이 된다 하온들, 끝없는 이 원한은 어느 날이라 다하리오까.

오호라, 창 사이에서의 만남은 이제 그만입니다. 바라옵건대 낭군께서는 천첩을 관심으로 두시지 마시옵고, 더욱 글공부에 힘쓰시어, 일찍이 청운에 이르옵소서. 이를 데 없이 소중히 하옵소서.”

심생은 이 편지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잃음에 울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비록 슬프게 울어 보아도 무엇하겠는가. 그 뒤에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관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역시 일찍 죽고 말았다.

매화외사\*는 논한다.

“내가 열두 살 때 시골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매일 동점들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노라. 어느 날 스승께서 심생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심생과 나는 소년일 때 함께 공부하였도다. 심생이 산사에서 편지를 받고 통곡할 때에, 나도 글을 보았더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구나.’

하시며, 이어 ㉤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풍류 소년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일에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중의 처자라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하물며 문장이나 과거야 왜 안 되겠느냐?’

하셨도다. 우리들은 그 당시에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느끼었다. 뒤로 『정사』\*를 읽어보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많았다. 이에 이를 덧붙여서 정사의 보유(補遺)\*로 삼을까 하노라.”

- 이옥, 『심생전』 -

\* 매화외사 : 작자인 이옥의 호.

\* 『정사』 : 명나라 때의 문인 풍몽룡이 남녀 애정과 관련된 중국 역대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

\* 보유 : 빠진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 『정사』의 몇몇 권 뒤에 ‘보유’ 항목을 두고 추가 작품을 수록하였기에 한 말임.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여인이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간 공간이다.
- ② ㉡는 심생이 삼십 일 동안 머물며 여인을 기다린 공간이다.
- ③ ㉢는 여인과 가깝지만, 여인이 존재하지는 않는 공간이다.
- ④ ㉣는 심생이 예상치 못하게 떠나게 된 공간이다.
- ⑤ ㉤는 심생이 목표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공간이다.

19. 여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생이 과거 공부를 하지 않자 그에게 학업에 정진하기를 권한다.
- ② 심생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심생과 얼굴을 마주칠 기회를 얻기 위해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러 나갔다.
- ④ 심생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사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민했음을 언급한다.
- ⑤ 심생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생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은 ㉠과 달리 담화의 발신과 송신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③ ㉠과 ㉡이 각각, 상대방이 집중하기를 바라는 대상은 동일하다.
- ④ ㉠과 ㉡은 모두, 상대방이 잘 알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상대방이 의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심생전」에서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이 충돌하는 사안을 두고 인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세태 변화와 관련된다. 저자 이옥은 민요를 한시로 재창작한 작품집 「이언(俚諺)」의 서문에서 남녀의 정을 살피는 일이 세상의 모습을 관찰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하여 세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① 여인의 부모가 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인과 심생이 ‘같이 동침을 하는 모습은, 조선 후기 개인의 욕망의 영향력이 세졌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스승이 기록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음은, 조선 후기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을 둘러싼 세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심생이 ‘빛을 던지’는 행위는 여인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이루어지며, 개인적 욕망을 좌절시킨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심생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음에도 ‘일찍 죽’은 것은, 사회적 관습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여인이 ‘심생을 부르’는 행위는 심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이어지며, 심생이 여인과 달리 능동적으로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일치성(百日致誠)\* 끝에 산삼은 이내 나가지 않았다 자자 나무 화룻불에 화근 비추우자 도라지 더덕 취쌔 틈에서 산삼순은 몸짓을 흔들었다 심캐기늬은이는 엽초(葉草)\* 순쓰래기 피어 물은 채 돌을 베풀고 그날밤에사 산삼이 담속 불거진 가슴팍이에 앙장스럽게 후취(后娶)감어리\*처럼 당홍(唐紅)치마를 두르고 안기는 꿈을 꾸고 났다 모랫불 이운듯 다시 살아난다 경관(警官)의 한쪽 찌그린 눈과 빼어난 먼 불 사이에 총겨냥이 조옥 켜다 별도 없이 검은 밤에 화약불이 당홍 물감처럼 고왔다 다람쥐가 도로로 달려 들어났다.

- 정지용, 「도굴」 -

- \* 백일치성: 백 일 동안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정성을 드리는 행위
- \* 엽초: 담뱃잎
- \* 후취감어리: 아내와 이혼한 사람이 다시 맞은 아내(후취)가 될 법한 사람.

(나)

그사기첩은 ㉠ 내해골과 흡사하다. 내가 그첩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팔에서는 난테 없는 팔하나가 접목처럼 돌뒀더니 그팔에 달린 손은 그사기첩을 번쩍들어 마룻바닥에 매어 부딪는다. 내팔은 그사기첩을 사수하고 있으나 산산이 깨어진 것은 그럼 그사기첩과 흡사한 내해골이다. 가지났던 팔은 배암과 같이 내팔로 기어 들기 전에 내팔이 흑옴직 었던 흉수를 막은 백지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팔은 여전히 그사기첩을 사수한다.

- 이상, 「오감도」 中 시제11호 -

(다)

그림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며,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소장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장강의 그림을 부엌에 걸거나, 왕애의 그림을 벽에다 꾸미는 사람은 오직 소장하기만 하는 것일 뿐이니, 능히 그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A] 그림을 본다고 해도 어린이가 보는 것과 비슷하리니, 그림을 보며 입을 벌리고 흐뭇해하기는 하지만, 붉고 푸른 색깔 외에 다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능히 그 그림을 사랑할 수가 없다.
- [B] 설령 사랑한다고 해도 오직 빛이나 종이의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취하려는 사람이거나, 그림의 형상이나 배치만으로 그림을 구하려는 사람이기에, 능히 그 그림을 제대로 알아 볼 수가 없다.
- [C] 그림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외형이나 법도 같은 것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오묘한 이치와 아득한 조화를 바탕으로 마음으로 그림을 만나려 한다.
- [D] 그런 까닭에 그림을 감상하는 진정한 오묘한 즐거움은, 소장하거나 바라보거나 아끼는 등의 세 부류의 껍데기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림을 알아보는 것에 있는 것이다.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보이게 되면 마땅히 이를 소장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E]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석농(石農) 김광국(金光國)의 자는 원빈(元賓)인데, 그림을 알아보는 데 기가 막히도록 탁월했다. 원빈은 그림을 형태가 아니라 정신으로 그림을 보았다. ㉠ 천하에서 좋아할 만한 물건을 통틀어 원빈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림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은 더욱 깊었기에, 쌓이고 쌓인 그림이 저토록 많았다.

원빈이 화폭을 펼쳐 논평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논의가 고아함과 숙됨, 높고 낮음, 기이함과 바름, 죽음과 삶, 흑백처럼 분명하게 나누니, 그림을 깊이 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원빈의 모든 그림은 그저 단지 소장하는 그림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다 해도, 자고로 호사자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그림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원빈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 유한준, 「석농화원 발」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그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붉고 푸른 색깔 외의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B]: 붓이나 종이의 색깔만 가지고 그림의 형상이나 배치를 구하는 것은 그림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③ [C]: 그림의 참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처음으로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④ [D]: 그림을 소장하는 것, 바라보는 것, 아끼는 것 모두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아니며, 그림을 참으로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E]: 그림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 그림을 참되게 소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부각되는 이미지나 행동은 어휘 차원을 넘어 시행과 시 전체의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다. (가)에서는 경험되어 마땅한 것이 경험된다고 묘사되지 않는다면, (나)에서는 독자의 일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험될 수 없는 것이 경험되는 것처럼 기술된다

- ① (가)의 '경관'이 '총'을 쓴 것은 '도로로 달려 달'아나는 '다람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마땅히 경험되어야 할 화약의 불빛은 진술되지 않고 있군.
- ② (가)의 '총'을 맞은 화자가 감각해야 마땅한 총성은 시에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통증은 시에 묘사되지 않고 있군.
- ③ (나)의 '내팔'이 '사기껍'을 '마룻바닥에메어부딪'혔음에도 '그 사기껍'을 '사수'하고 있는 것은 독자가 일반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이겠군.
- ④ (나)의 '난데없는팔'이 '내팔'에서부터 '점목처럼돋히'는 것은 독자가 일반적으로 감각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시각적 및 촉각적 경험이겠군.
- ⑤ (나)의 '내해골'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물로, 그것을 '산산이깨'기 위해 집어던지는 것은 독자가 일상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행동이겠군.

2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과 의사소통하고 있고, ㉡은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
- ② ㉠은 화자가 지키지 못한 것이고, ㉡은 '김광국'이 수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 ③ ㉠은 화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은 '김광국'이 전부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 ④ ㉠과 ㉡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인물이 그것에 대한 분별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의 시 「도굴」에는 꿈과 현실의 대조라는 의미 구조가 나타난다. 시상은 상이한 구조 안팎에 배치되어 '심캐기늪은이'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부각된다.

- ① '심캐기늪은이'의 꿈 속에서 '산삼'이 입은 '당홍치마'는 인물의 대상에 대한 지향적 태도를 강조하는군.
- ② '심캐기늪은이'가 마주치는 '도라지', '더덕', '취쌔'은, '심캐기늪은이'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군.
- ③ '심캐기늪은이'의 현실과 희망적인 꿈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아, '엽초'는 '심캐기늪은이'의 희망을 환기하는군.
- ④ '당홍'색은 '심캐기늪은이'의 꿈과 현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 두 세계를 시각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⑤ '심캐기늪은이'가 '산삼'을 위해 '백일치성'한 것은, '심캐기늪은이'가 '산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향로 대항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에 고쳐 올라 앉으니  
 여산과 같은 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인다  
 ㉠ 아아 조화옹의 재주가 대단하구나  
 날려가듯 뛰지 말고 서려가듯 솟지 말 것이지  
 연꽃을 꽃아놓은 듯, 백옥을 묶어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피고 있는 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은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피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아아, 너로구나, 너같은 이 또 있는가  
 개심대 고쳐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일만 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봉마다 뻗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 말 것이지  
 저 기운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자  
 형용도 끝이 없고 체제도 많고 많다  
 천지가 생겼을 때 자연히 되었지마는  
 ㉢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구나

(중략)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이 얼핏 드니  
 꿈에서 한 사람이 날더러 이른 말이  
 그대를 내 모르라 상계의 신선이라  
 황장경 한 글자를 어찌 그릇 읽어 두고  
 ㉣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만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마셔 보오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어내어  
 저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여 낭의를 추켜드니  
 구만리 장공에 저기면 날것 같구나  
 ㉤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 나누어  
 억만 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구나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 공중 옥소리 어제던가 그제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이든 어찌 알리  
 명월이 천산만약에 아니 비친 데 없다

- 정철, 「관동별곡」 -

(나)

맥들이 동난이지 사시오 저 장수야 너의 물건 그것이 무엇  
 이라고 외치느냐  
 곁은 빼요 속은 고기요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며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2개 달려 있고  
 청장은 아삭하니 맛있는 동난이지를 사시오

장수야 복잡하게 외치지 말고 계절이라 하려무나  
 - 작자 미상 -

(다)

십년을 경영하여 ㉦ 초당 한 칸 지어내니  
 반칸은 청풍이오 반칸은 명월이라  
청산은 들일 데 없으니 한테 두고 보리라  
 - 송순 -

27.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다)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다)와 달리 대화를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화옹의 재주가 대단’하다고 감탄한 것은, 작가가 여산을 바라보며 여산을 만든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 말 것’이라고 한 것은, 작가가 개심대와 중향성 각각이 맑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다고 한 것은, 작가가 바라보는 풍경은 자연의 이치대로 생겼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초월적 존재가 작가에게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라고 묻은 것은, 자신을 따르는 작가의 존재를 깨닫고 이를 의아하게 여겼음을 보여 주는군.
- ⑤ ‘공중 옥소리’를 떠올리며 ‘어제던가 그제던가’ 헛갈려하는 것은, 작가의 시점이 환상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군.

2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타인에게 시도하라고 권유한 대상이다.
- ② ㉠은 ㉡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이다.
- ③ ㉡는 ㉠과 달리, 화자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 ④ ㉠과 ㉡는 모두, 화자가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 대상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의 주체는 그가 속한 세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다. 이 때 각 주체는 서로 특유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틀에 따라 같은 대상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독자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반응을 근거로 그 주체의 인식의 틀을 추론할 수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굽힐 줄을 모르'는 자신의 특징과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② (나)의 화자와 '저 장수'는 '동남이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저 장수'가 '계짓'을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④ (다)의 화자는 '청풍'과 '명월'이 중첩되어 자신이 얻어낸 초당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군.
- ⑤ (다)의 화자는 '청산'은 '들일 데 없'어서 함께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의 반의어는?”  
 내가 물으면 호리키는 입을 일그러뜨리고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에에, 화월(花月)이라는 요릿집이 있으니까, 달.”  
 “아니야. 그건 반의어가 아니야. 오히려 유의어지. 별과 제비꽃도 유의어잖냐? 반의어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면 꿀벌이다.”  
 “꿀벌?”  
 “모란에…… 개미던가?”  
 “뭐야? 그건 그림의 모티프라고. 얼버무리려 들면 안 되네.”  
 “알았다! 꽃에는 떼구름.”  
 “달에 떼구름이겠지.”  
 “그래, 그래. 꽃에 바람, 바람이다. 꽃의 반의어는 바람.”  
 “졸렬하군. 그건 나나와부시\* 가사 아니야. 출신을 알 만하군.”  
 “아니, 피바다.”  
 “더 졸렬해. 꽃의 반의어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꽃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잠깐. 뭐야. 여자군.”  
 “내친김에 여자의 유의어는?”  
 “창자.”  
 “자네는 참 시를 모르는군. 그럼 창자의 반의어는?”  
 “우유.”  
 “야, 그건 좀 썩잖은데.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부끄러움의 반의어.”  
 “몰염치지. 유행 만화가 조시 아키타.”  
 “호리키 마사오는?”  
 이때쯤 되면 두 사람 다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고 소주에

취했을 때 특유의, 유리 파편이 머리에 가득 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직 너처럼 ㉠오랏줄에 묶이는 치욕 같은 건 겪은 적이 없어.”

[A] 흠칫했습니다. 호리키는 내심 저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저를 죽어야 할 때를 놓친 쓸모없고 몰염치한 바보의 화신, 말하자면 ‘살아 있는 시체’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호리키에게는 쾌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그뿐인 ‘교우’였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저라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리키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저는 옛날부터 인간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역시 나는 호리키한테조차 경멸받아 마땅한지도 모른다고 고쳐 생각했습니다.

“죄, 죄의 반의어는 뭘까. 이걸 어렵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이지.“

[B] 호리키가 태연히 그렇게 대답하기에 저는 호리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운 빌딩에서 명멸하는 ㉡네온사

인의 붉은빛을 받아 호리키의 얼굴은 무서운 형사처럼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져서 소리쳤 습니다.

”자네!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죄의 반의어가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린다지.

”그럼 뭘테? 신이야? 자네한테는 어딘지 목사 같은 구석이 있어. 기분 나쁘게.“

”자, 자,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말자고. 들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이걸 재미있는 테마 아닌가? 이 테마 하나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마. ……죄의 반의어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것이지.“

”농담은 그만두자고. 선은 악의 반의어이지 죄의 반의어는 아니야.“

”악과 죄는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 거지.“

”말이 많군. 그렇다면 역시 신이겠지. 신, 신. 뭐든지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어. 아아, 배가 고포네.“

”지금 아래에서 요시코가 ㉢완두콩을 삶고 있어.“

”저런, 고마워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저는 양손을 머리 뒤에 베고 별명 누웠습니다.

”자네는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군.“

”그야 그렇지.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난봉은 즐겨도 여자를 죽게 하거나 여자한테서 돈을 우려내거나 하지는 않거든.“

[C] 죽인 게 아니야. 우려낸 게 아니야 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그러나 필사적인 항변의 소리가 끊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니, 내가 나쁜 거라고 금방 다시 고쳐 생각해 버리는 이 버릇.

저는 아무리 해도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토론을 하질 못합니다. ㉠소주의 음침한 취기 때문에 시시각각 마음이 협박해지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일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반의어를 알면 죄의 실체도 파악될 것 같은데. ……신, ……구원, ……사랑, ……빛, ……그러나 하느님한테는 사탄이라는 반의어가 있고, 구원의 반의어는 고뇌일 테고, 사랑에는 증오, 빛에는 어둠이라는 반의어가 있고,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회개, 죄와 고백, 죄와…… 아아, 전부 유의어야. 죄의 반의어는 대체 뭘까?"

"죄의 반의어는 풀이지. ㉡풀처럼 달콤하거든. 아아, 배고파. 아무거나 먹을 것 좀 갖고 와."

"자네가 갖고 오면 될 것 아니야!"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할 만큼 격렬한 노여움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

\* 나나와부시: 의리, 인정 등의 주제를 악기 반주와 함께 노래하는 대중적인 창

31. [A]~[C]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묘사되는 인물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C]는 내적 독백을 통해 주인공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다르다.
- ⑤ [B]는 [C]와 달리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생사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호리키'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있다.
- ② '나'는 '호리키'의 '나'에 대한 평가에 불쾌감을 갖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 ③ '나'와 '호리키'는 번갈아가며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의 반의어가 무엇인지 대화하고 있다.
- ④ '나'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호리키'는 이를 통해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 ⑤ '나'와 '호리키'는 서로가 제시한 반의어에 대해 그것은 반의어가 아니라 유의어라고 서로 비판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물건으로, '나'와 '호리키'의 관계에 대한 '나'의 인식을 역전되게 만든다.
- ② ㉡은 '나'의 시야에 들어온 물건으로, '나'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강조한다.
- ③ ㉢은 '나'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나'와 '호리키'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의 논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나'의 성격과 상반된 영향을 준다.
- ⑤ ㉤은 배가 고프은 '나'와 '호리키'가 먹으려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인간의 위선과 폭력성을 피부 그대로 경험한 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행한 자기 회복의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며 점점 심화된다. 한편, 작중 주인공은 절대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절대자는 그에게 정신적 위안이나 회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인공은 생각한다. 작중 주인공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 ① 주인공이 호리키와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죄의 반의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가 죄의식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주인공이 '선'의 반의어가 '악'일 수는 있어도 '죄'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을 보여 주는군.
- ③ 주인공이 '하느님에게는 사탄이라는 반의어가 있다'고 읊조리는 부분에서, 그가 적어도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주인공이 '죄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것을 일종의 자기 회복적 시도라고 본다면, '기도', '회개', '고백'은 자기 회복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겠군.
- ⑤ 주인공이 호리키에게 '격렬한 노여움의 소리'를 지른 것은, 죄의 반의어가 무엇인지 탐구하며 절대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을 쓸 때는 마법진이 발동되고 주변에 룬 문자로 쓰인 문장들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 1 제시) 그런데 마법진의 기원은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오컬트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룬 문자는 북유럽의 켈트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문화권의 문화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네, 모두 관심이 있으시군요. 마법진과 룬 문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마법을 묘사한 매체의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법진의 개념의 시작은 아랍 연금술사들이 14세기 경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마도서 「솔로몬의 열쇠」에 등장하는 의식용 원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료 2 제시) 본래는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소환할 때 소환된 악마를 가두기 위해 바닥에 그리는 일종의 ‘결계’가 당시의 마법진이었습니다.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진을 마법이나 악마 소환의 매개체로 사용한 최초의 작품은 1963년의 「악마군」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에로임 옛사임”이라는 주문과 함께 바닥에 기하학적인 마법진을 그려 악마를 소환하는데요 이는 1926년 독일의 무성 영화 「파우스트」에 등장한 마법진 연출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자료 3 제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법진은 직접 그어야 하는 것이었고 룬 문자와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브컬처가 발전함에 따라 묘사 방식도 크게 진화했습니다. (자료 4 제시) 이처럼 마법진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묘사가 등장한 것인데요,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시리즈에서는 이를 비틀어 ‘마법 문명이 발달하며 마력으로 진을 자동 전개하는 기술이 생겼다.’는 설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룬 문자를 마법의 언어에 사용하는 전통은 J.R.R. 톨킨의 전설적 작품 「호빗」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료 5 제시) 이 설정은 서양의 유명 TRPG 게임 등에서 차용되었고, 일본 TRPG 「로드스도 전기」 등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룬 문자는 외형적으로 뾰족하고 직선적이어서 기하학적인 마법진 도안과 미적으로 잘 어울렸기 때문에, 마법진과 널리 연결되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룬 문자는 현대 서브컬처의 마법 주문을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구축한다는 설정과 그럴듯하게 조화되기도 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중간에 청중의 대답을 유도하여 집중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③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앞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이 발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번	내용
자료1	중동·지중해와 북유럽이 해생되어 강조된 지도 ..... ㉠
자료2	악마를 마법수에 가두는 마법사의 묘사적 일러스트 ..... ㉡
자료3	「파우스트」와 「악마군」을 순서대로 연이어 붙인 영상 자료 ..... ㉢
자료4	마법비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장면 영상 자료 ..... ㉣
자료5	톨킨의 작품과 서양의 TRPG에 사용된 룬 문자 사진 자료 ..... ㉤

- ① ㉠은 마법에서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두 요소가 사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각 기원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② ㉡은 마법진 사용 방법의 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여 상황을 청자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③ ㉢은 특정 창작물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창작물이 참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창작물을 먼저 제시하여 아이디어 수용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④ ㉣은 마법진이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방법이 발전되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⑤ ㉤은 룬 문자가 일본권 창작물에서 사용되기 전 서양의 창작물에 먼저 사용되었음을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마법진과 룬 문자는 항상 연결지어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비롯된 요소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어. 나도 룬 문자와 마법진이 외형적으로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해.

**학생 2:** 마침 마법이 등장하는 작품을 구상 중이었는데, 마법 주문을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이해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이 뭐가 있는지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3:** 마도서 「솔로몬의 열쇠」가 아랍권 연금술사들이 쓴 책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유행 당시에는 솔로몬 왕이 직접 썼다는 설정으로 널리 알려졌었는데, 이 내용이 발표에 없어서 아쉬워.

- ① 학생 1은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 부합하는 사례를 추가로 탐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에 주목해 발표 내용의 중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3은 학생 1과 달리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를 평가하고 있다.

[38~42] (가)는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시사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며, (다)는 '학생 1'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최근 인천 국제공항에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이용 실적이 높은 고객이나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별도의 보안 검색 줄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찬성 측 입장으로 항공사 관계자와 반대 측 입장으로 시민 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1: 인천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공항입니다. 세계 공항 순위 상위권에 있는 다른 공항들이 대부분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인천 국제공항만 패스트트랙이 없는 것은 공항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입니다.

관계자 2: 공항은 세금으로 건설된 공공 시설입니다. 특정 항공사의 우대 고객이라는 이유로, 비싼 좌석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과 별도의 보안 검색 우대 줄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진행자: ㉠ 먼저 찬성 측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근거로 들어 주셨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자 2: 이미 인천 국제공항은 여러 신문이나 평가 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공항이라고 극찬받는 공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큼니다.

진행자: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시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근거로 들어 주셨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자 1: 상위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불한 금액에는 일반석 이용 고객보다 더 높은 공항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항 이용료로 더 많은 돈을 내는 만큼의 우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 1: 우리 이번 주 뉴스에서 다뤄진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해 비평문을 쓰기로 했잖아. ㉡ 어제 인터넷에서도 관련 논란이 뜨겁더라고. 둘 다 방송 봤지?

학생 2: 응.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더 관심이 가더라.

학생 3: ㉢ 과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나도 흥미롭게 봤어.

학생 1: 방송에서 언급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근거가 전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 2: ㉣ 나는 상위 클래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공항 이용료를 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그 공항 이용료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면 패스트트랙 운영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학생 1: 확실히 그 부분을 고려하면 설치 반대 측의 주장에 반박이 되는 것 같아.

학생 3: 내 생각은 좀 달라. 먼저 그 공항 이용료가 전부 공익적 목적으로 쓰인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항공사 탑승 실적이 높은 고객이 일반석을 구매하면 공항 이용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학생 2: 듣고 보니 그렇네. ㉤ 그렇다면 추가 공항 이용료는 반드시 접근성 개선이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위 클래스 승객에 한정해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학생 3: 좋은 생각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제한적인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공항도 있나?

학생 1: 내가 한 번 조사해 볼게. 그걸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 보자.

(다)

최근 인천 국제공항은 2터미널 건설이 완료되어 세계 3위 규모의 국제공항이 되었다. 이런 인천 국제공항에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이란 상위 클래스 좌석을 구매한 승객이나 항공사 탑승 실적이 좋은 고객에게 일반 승객과 다른 별도의 보안 검색 창구를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항은 공공 시설인데 사기업인 항공사에 비싼 돈을 냈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항공권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모든 항공권에는 공항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상위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일반석을 구매한 사람들보다 이미 더 많은 공항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공항 이용료는 오히려 공항의 접근성 개선이나, 장애인 및 고령층을 위한 시설 설치 등 공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일견 불공정해 보이는 특혜가, 사실은 추가 지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다.

단, 항공사 탑승 실적이 높은 우수 고객에게까지 패스트트랙 이용을 기능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항공사 탑승 실적이 높은 고객이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면, 더 높은 공항 이용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사례는 이미 도쿄 하네다 공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 패스트트랙에 오히려 사람이 더 몰려 빠르지 않은 패스트트랙이 되는 불상사도 예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라의 첫인상과 끝인상을 결정짓는 인천 국제공항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8. (가)와 (나)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집단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대화 참여자가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화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들만을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참여자의 발언 순서가 정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화 주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발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39. 담화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다른 대화 참여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는지 묻고 있다.
- ② ㉡: 대화 주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이 추측한 바를 제시하여 대화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 ④ ㉣: 상대의 발언으로부터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과 다른 대화 참가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0.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다른 공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관계자 1'의 말은 (다)에서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 ② 패스트트랙의 운영 양상에 대한 '학생 3'의 의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사한 내용이 (다)에서 필자의 의견을 보충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③ 패스트트랙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공항 이용료의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이 (다)에서 필자의 관점이 갖는 한계를 보충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④ 인천 공항의 우수성에 대한 '관계자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의 관점이 갖는 한계로 제시되었다.
- ⑤ 공항의 공공성에 대한 '관계자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다)에서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으로 제시되었다.

41. (다)의 문단에 따라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 인천 공항의 현재 위상과 보안 검색 패스트트랙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 ② 2문단: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그 입장이 잘못된 이유를 서술하였다.
- ③ 3문단: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을 두 가지 서술하였다.
- ④ 4문단: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구인지 서술하였다.
- ⑤ 5문단: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42. <보기>는 (다)의 3문단의 초고이다. 초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썼다고 할 때, 반영했을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모든 항공권에는 공항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일반석을 구매한 사람들보다 이미 더 많은 공항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항 이용료는 공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일부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좋겠어.
- ②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문장을 나누면 좋겠어.
- ③ 문단 내에서 언급된 내용을 예시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어.
- ④ 마지막 부분에 문단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 ⑤ 불필요하게 긴 단어를 동일하게 지칭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교체하면 좋겠어.

[43~45]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교내 동아리 발표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서 기뻐. 관련해서 교내 신문 편집부에 기고문을 남길 수 있는데, 그 밴드에 대해 더 소개하면 어떨까? ㉠ 밴드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시작하자. 그리고 ㉡ 밴드 멤버를 소개하고 ㉢ 이 밴드 음악의 특징을 소개해야지. 그리고 ㉣ 밴드의 수상 기록등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에는 ㉤ 그 밴드의 유명한 노래들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나)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밴드부 '결속밴드'의 리더 □□□입니다. [A]

지난번 연주회에서 마지막에 선보여드린 곡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 'BURNOUT SYNDROMES'의 노래입니다. 이 기회에 학생 여러분께도 이 밴드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번아웃신드롭스는 2005년 오사카에서 결성된 밴드입니다. 그 당시 멤버들은 중학생이었다고 하니, 저보다 어린 나이에 밴드를 시작한 셈이네요. 2010년 도쿄FM의 서바이벌 경연대회 <섬광 Riot>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큰 화제가 된 번아웃신드롭스는 이후 애니메이션 <하이큐!!>의 오프닝 주제 곡을 맡아 메이저 밴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신드롭스는 스스로의 음악을 청춘문학 록이라고 정의합니다. '문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사의 문학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밴드의 기타와 보컬을 담당하는 쿠마가이 카즈우미의 영향이 큼니다. 도시사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가 쓴 가사에는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살린 가사가 많습니다. 베이스 이시카와 타이유는 서브보컬을 맡으며, 라이브에선 그가 사회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전세계의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세 타쿠야는 드럼을 담당하는데요. 화려한 드럼과 함께 중간중간 코러스를 넣어주는 히로세까지 3명이 운영하는 밴드가 번아웃신드롭스입니다.

올해 결성 20주년을 맞이한 번아웃신드롭스는 인디 시절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국내 락 페스티벌에도 내한하여 공연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는 멋진 밴드입니다. 여러분도 이 밴드의 매력에 빠져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3.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편집부의 조언을 받아 [A]에 들어갈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조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지난 공연에 시간 내어 관람하러 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공연장의 문제로 인해 공연이 30분정도 지연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지 않고 공연을 관람해 주셨습니다.

- ① 결속밴드의 소개와 함께 밴드의 역사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글의 초반부에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 ② 공연에서 연주했던 곡이 무엇무엇인지 다시 리스트를 언급하여 독자로 하여금 공연 주제를 상기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③ 공연 당시 있었던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에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④ 소개하려는 밴드의 음악이 애니메이션 타이업으로 유명한데, 어떤 애니메이션의 노래를 담당했었는지 나열하면 좋겠습니다.
- ⑤ 공연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그 주제와 더불어 같이 들었으면 하는 곡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45.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2016년 웹매거진 Meetia와의 인터뷰  
 “쿠라카미 류 작가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는 저희 곡 「문학 소녀」에 직접 인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하늘을 보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다.’라고 깨닫는 순간의 감정 자체를 담고 싶었습니다.”  
 - 쿠마가이 카즈우미

ㄴ. 2016년 웹매거진 Natalie와의 인터뷰  
 “중학생 시절 동년대의 사람들을 만나 ‘모두 이런 노래를 만들지는 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기쁨같은 것도 그 때 알게 되었고,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2012년에 만든 「리프레인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아」는 아직까지도 라이브에서 공연할 때 많은 환호성이 오는 곡입니다.”  
 - 이시카와 타이유

ㄷ. 2024년 Billboard Japan과의 인터뷰  
 “해외에서의 라이브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궁리를 거듭해 왔고,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기술도 멘탈도 단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히로세 타쿠야

- ① ㄱ을 인용하여, 직접 문학 작품을 인용한 밴드 곡을, 밴드의 청춘‘문학’ 록을 보여주는 사례로 3문단에 추가한다.
- ② ㄴ을 인용하여, 실제 밴드의 역사가 매우 길다는 인터뷰 내용을, 밴드의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ㄴ을 인용하여, 실제로 과거에 만들었던 곡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것을, 20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④ ㄷ을 인용하여, 해외에서의 라이브 경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내한 공연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⑤ ㄱ과 ㄴ을 인용하여, 실제 문학 작품을 인용한 곡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음을, 메이저 밴드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주의는 단어를 구성하는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의 원형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표기 원칙이다. 이와 대비되는 음소주의는 단어를 실제 들리는 대로 적는 표기 원칙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의 제1항 1장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443년 세종이 최초로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만 해도 이어 적기(연철)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철만 사용해서는 뜻을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먹고’, ‘먹어’, ‘먹으니’를 철저한 음소주의에 따라 ‘먹꼬’, ‘머기’, ‘머그니’로 적으면, 어간 ‘먹-’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의미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

한글 맞춤법과 표기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극단적인 형태주의적 원칙 고수가 나타났던 사례로 조선어 신철자법이 있다. 특히 이들은 용언의 규칙 또는 불규칙 활용 과정의 철자 변화마저 규칙적으로 그 형태를 밝혀 적으려고 노력했다. 다음은 조선어 신철자법으로 작성한 예문이다.

한글 맞춤법	조선어 신 철자법
1.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	그립니 이름을 부르든다.
2. 선생님을 불러서 묻는다.	선생님을 부러서 묻는다.
3. 좁은 길을 따라 웃으며 걸었다.	좁은 길을 따따 웃으며 걸었다.
4. 어머니 말씀을 듣고 따른다.	어머니 말씀들 듣고 따르든다.
5. 씨감자를 고르고 골라 땅에 묻는다.	씨감자들 고르고 골따 땅에 묻는다.
6. 사는 곳이 멀어요?	살는 곳이 멀어요?
7. 먼 곳에 삽니까?	멀니 곳에 삽따니까?
8. 물을 붓고 저어라.	물을 붓고 저어라.
9. 개가 다리를 물어 아팠다.	개가 다리를 물어 아팠다.
10. 아픈 사람을 도와라.	아픈 사람을 도와라.
11.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
12. 이 방은 좁고 비좁다.	이 방은 추고 비좁다.

이러한 조선어 신철자법은 형태음소학적으로만 따지면 가장 이상적인 표기법이었지만, 기존의 표기법과의 지나친 괴리감으로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35. 윗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음소주의와 형태주의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늑다’를 ‘늑다’로 적는 것은 형태주의를 따른 표기법의 예시이다.
- ③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법은 음소주의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었다.
- ④ 조선어 신철자법이 널리 퍼지지 못한 것은 언중이 이에 익숙해지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 ⑤ 현행 한글 맞춤법은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용언의 표기에 형태주의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조선어 신철자법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현대식	물건을 실어 날랐다.
	신철자법	물건을 실어 나랸다.
②	현대식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신철자법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든다.
③	현대식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었다.
	신철자법	두 점을 잇는 직선들 그었다.
④	현대식	나 대신 걸려 주어서 고맙다.
	신철자법	나 대신 거떡 주어서 고맙다.
⑤	현대식	추운 날 뛰놀던 아이는 손이 곱았다.
	신철자법	추니 날 뛰놀던 아이는 손이 곱았다.

37. <보기>는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그 뻘 흥 菩薩 比丘 | 일후미 常不輕이러라  
그 때 한 보살 비구가 이름이 상불경이더라.

(나) 네 이 숲을 뒸든다 아니 뒸든다 對答호스보디 實로 뒸다이다  
네가 이 념을 깨달았느냐 아니 깨달았느냐? 대답하십시오. 실로 깨달았습니다.

(다) 이 꾸피 因緣은 네 장초 부터드웁 相이로다 善慧 듣좁고 깃거호더시다  
이 꿈이 인연은 네가 장차 부처가 될 상이로다. 선혜가 듣고 기뻐하시더라.

(라) 須達이 보니 여섯 하늘에 宮殿이 식씩호더라  
수달이 보니 여섯 하늘에 궁전이 장엄하더라

(마) 내 아드리 지비 잇던던 輪王이 드외리러니 出家호야 호 일도 못 일우도다  
내 아들이 집에 있었더라면 윤왕이 되었을 텐데 출가하여 한 가지 일도 못 이루었도다.

- ① (가): 중세 국어 ‘-더-’는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 ② (나): 중세 국어 ‘-더-’는 1인칭 평서문과 2인칭 의문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었다.
- ③ (다): 중세 국어 ‘-더-’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 ④ (라): 중세 국어 ‘-더-’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진술하는 상황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 ⑤ (마): 중세 국어 ‘-더-’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다.

38.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영희가 철수와 만났음이 분명하다.  
 (나) 영희가 밥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 영희가 동생이 산 책을 읽었다.  
 (라) 영희가 목이 쉬게 소리를 질렀다.  
 (마) 영희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바) 영희가 밥을 먹기가 어렵다.

- ① (가)와 (나)의 안긴문장은 종류가 다르고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도 다르다.
- ② (나)와 (다)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으나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의 여부가 다르다.
- ③ (다)와 (마)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④ (라)와 (마)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다르나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다르다.
- ⑤ (마)와 (바)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같으나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다르다.

39.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국어의 받침 중에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잎’의 중성 ‘표’는 환경에 따라 세 가지 소리로 발음된다.

구분	환경 1 (_ #)	환경 2 (_ +이)	환경 3 (_ +만)
잎(leaf)	[입]	[이피]	[입만]

이 중 하나는 해당하는 단어의 정확한 실체인 ‘기본 형태’이고 나머지는 ‘변이 형태’이다. 그 중 ‘잎’의 기본 형태로 ‘입’을 가정한다면,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받침을 가진 다른 단어, ‘집’이 <환경 1>에서 [집], 즉 ‘비’이 [비]으로 발음되므로 우리의 가정이 <환경 1>에서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환경 2>에서 ‘집’의 ‘비’는 [지비]의 [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잎’의 기본 형태를 ‘입’으로 가정한 경우 <환경 2>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잎’의 기본 형태가 ‘입’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오직 ‘잎’을 기본 형태로 가정한 경우 세 환경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기본 형태가 ‘갑’, ‘값’, ‘감’ 중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값이 싸고 맛있는 과일은 없다.

- ① ‘갑’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과 <환경 2>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 ② ‘갑’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2>와 <환경 3>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 ③ ‘값’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을 설명할 수 있지만 <환경 2>를 설명할 수 없다.
- ④ ‘감’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을 설명할 수 있지만 <환경 2>를 설명할 수 없다.
- ⑤ ‘감’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을 설명할 수 없지만 <환경 3>을 설명할 수 있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사실을 다루는 방송 ‘지식의 나무’의 김위킵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라진 매체, ‘로스트 미디어’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자료 보시겠습니다!

**로스트 미디어란?**

원본이 유실된 매체, 사라진 매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체 등 하지만 사람들 기억에 남아 있음

로스트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노래 “TMMS”



말씀드렸듯 로스트 미디어란 직역하면 ‘유실된 매체’, ‘잃어버린 매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다시 찾아보니 없다’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의 자료의 일부는 존재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부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존재하여 그 실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넓은 범위를 지칭합니다.

	<b>오맹이</b>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의 일부 내용만 기억나고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도 로스트 미디어겠군요!
	<b>비둘기</b> 로스트 미디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 봤지만, 비슷한 경험이나 개념은 다들 익숙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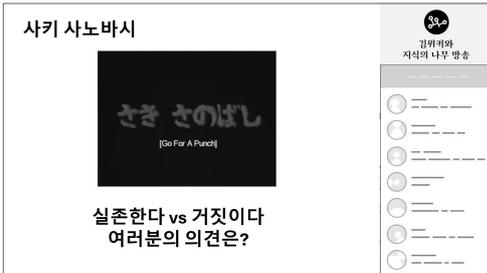
네, ‘오맹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폭넓게 로스트 미디어에 포함됩니다. @또, ‘비둘기’님의 말씀대로, 과거에도 로스트 미디어의 개념 자체는 존재했지만, ‘로스트 미디어’라는 표현이 인터넷에 널리 퍼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미카리**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2월 20일 오후 6시 북극 김정은은 남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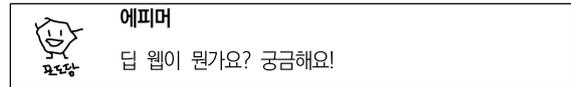
(‘미카리’의 채팅을 삭제하며) 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로스트 미디어’가 인터넷에 퍼진 계기는, 사실 어떤 노래 하나 때문입니다. ① 함께 들어 볼까요? (화면의 영상을 통해 노래를 재생시키며) 이 노래는 흔히 ‘TMMS’, 즉 ‘The Most Mysterious Song on the Internet’, 번역하면 ‘인터넷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이 노래의 라디오 방송 녹음본이 업로드되며,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곡의 제목은 물론, 가사나 맨드링, 발매 일자 등 어떠한 정보도 추정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b>오리비</b> 노래 자체가 좋은데요?! 미스터리라고 해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	--

‘오리비’님의 말씀처럼 곡 자체의 우수성도 이 노래가 화제가 된 것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는 2024년 청체가 발견되어 FEX라는 그룹의 테모곡 ‘Subways of Your Mind’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모든 로스트 미디어가 이렇게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도시 전설과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로스트 미디어도 있는데요. ‘사키 사노바시’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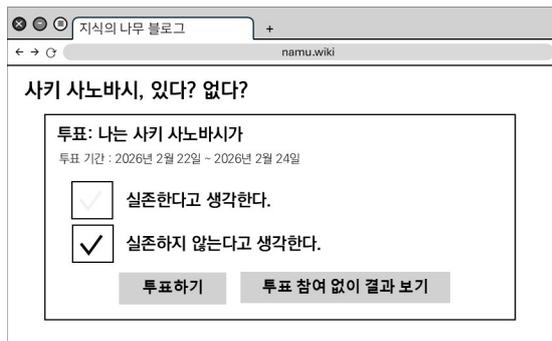
④ ‘사키 사노바시’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4Chan’에 올라온 글 “너희들이 딴 웹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정신 나간 게 뭐야?”라는 질문에 대한 댓글에서 처음 언급된 로스트 미디어입니다.



잠시 ‘에피머’님의 질문에 답변드릴게요. ‘딴 웹’은 일반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의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맥락상 공개적으로 올릴 수 없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에서 언급된 내용은 정말 끔찍한데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의 검열을 거쳐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키 사노바시’의 내용은 알몸의 소녀들이 문이 없는 커다란 화장실에 갇혀 방에서 나가기 위해 논쟁을 벌인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결국 나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들은 자살하거나, 서로 자살하는 것을 돕는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재현한 2차 창작물이고, 실존 여부는 아직도 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사키 사노바시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존 여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여러분의 투표를 블로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노래를 영상을 통해 재생하여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 ② 방송 제목을 상단에 배치하여 시청자들이 어떤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③ 방송 시청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송출하기 부적절한 정보는 적절히 편집하여 방송한다.
- ④ 방송으로 송출되는 자료 화면에 직접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여 보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⑤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지적을 수용하여 언급했던 내용을 수정한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으로 ‘투표’를 명시하여, 시청자 참여가 가능한 투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② 투표 기간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언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 ③ ‘투표하기’ 버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 후 선택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④ 두 선택지 각각에 체크 표시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사용자가 고른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 ⑤ ‘투표 없이 참여 결과 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의 반응만이 궁금한 이용자를 배려한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문장 부사 ‘또’를 사용하여, 이전 문장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청유하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여, 함께 노래를 들을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피동 표현 ‘밝혀지다’를 사용하여, 노래의 정체를 찾는 주체보다 정체가 밝혀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인용격 조사 ‘라는’을 사용하여, 원 글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되다’를 사용하여, 앞선 내용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43. (가)에 나타난 시청자들의 소통 참여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맹이’는 자신의 경험이 진행자가 언급하는 주제에 해당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 ② ‘비둘기’는 ‘로스트 미디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진행자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 ③ ‘미카리’는 방송과 무관한 채팅으로 방송을 방해하다 진행자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
- ④ ‘오리비’는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에피머’는 방송 중 제시된 특정 낱신 표현을 풀어 설명하여 다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4~45] (가)는 인천 국제공항 정보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사용자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리자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출발 정보      도착 정보

최신 출발 정보 + 더 보기

목적지	항공사	편명	터미널	게이트	시각	비고
NRT		903	T1	13	9:45	수속중
DTR		297	T2	283	14:50	지연
DFW		87	T1	37	10:00	수속중
LHR		13	T2	223	10:05	수속중
SFO		49	T1	41	10:05	수속중

출국장 대기 정보      1터미널 / 2터미널

(나)

고객의 소리      +

airport.kr

**공항 어플리케이션 관련 요청 및 질문 사항**

답변 상태 : 답변 완료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6.02.22. 22:22 조회 수 45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얼마 전 출국하며 공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항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항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맨 위 줄에 공항 로고만 나오고 '인천 국제공항'이라고 나오지 않는 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공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페이지에 출발편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은 좋습니다만, 출발편 목적지를 공항 코드가 아니라 실제 지명으로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도쿄' 공항이 NRT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항공사 정보도 항공사 로고만 제시하지 말고, 무슨 항공사인지 직접 글자로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출국장 혼잡도를 그림으로 알려주지 말고, 표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제시하면 글씨가 작아져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출국장 혼잡도는 1터미널과 2터미널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하면 항상 1터미널의 혼잡도가 표시되고, 2터미널 정보를 보고 싶으면 '2터미널'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2터미널 정보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인쇄      목록으로

**Reply : 공항 어플리케이션 관련 요청 및 질문 사항**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6.02.25. 22:22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상단 디자인에 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업데이트 시 수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발편의 목적지 정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해야 하는 작업이라, 추가 내부 회의 및 가능 여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결정되는 대로 추가 댓글을 통해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정보의 경우 항공사 이름을 텍스트로 제시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표 크기 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회의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우측 상단의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확한 항공사 이름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장 혼잡도를 지도와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각 출국장 위치가 출발층의 어떤 카운터 부근인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위함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회의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현재 실행 시 기본적으로 1터미널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터미널 정보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2터미널 버튼을 직접 선택하시어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서는 (나)와 달리 생략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더 보기' 기능이 제공된다.
  - (가)에서는 (나)와 달리 좌우로 표를 넘겨 가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가)에서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나)에서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게시물을 직접 올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나)에서는 (가)와 달리 화면의 정보를 디지털 매체 밖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용자는 ㉠에 추가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관리자는 이를 수락하고 있다.
  - 이용자는 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종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관리자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종류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이용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이용자는 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 일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관리자는 이용자가 질문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